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

군산시,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수동감시

군산에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9월 외국인 확진 현황은 6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2%에 해당하고 지난 8월에도 63명으로 44.6%로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50%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지난 8월이어서 지난달 17일부터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해 외국인 근로자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한 두 번의 대체휴무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지 및 타지역 이동량이 늘어 확산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행,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코로나19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조치가 포함됐다. 확진자와 접촉 당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관리된다.

또한 결핵산의 경우 기존 49명에서 접종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는 경우 접종자만 추가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해진다.

돌잔치의 경우 기존 16인에서 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49인까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현행 사적모임 규정 외에 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허용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방축도 출렁다리 10월 15일 정식 개통

바다 위를 걷는 고군산군도... 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방축도 출렁다리를 오는 15일 정식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방축도 출렁다리는 고군산군도 끝자락인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한 5개 섬 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를 잇는 4개의 인도교 중의 하나로 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설치한 길이 83m의 인도교다.

무인섬인 광대도와 유인섬인 방축도를 연결한 출렁다리는 동백숲길과 곳곳의 작은 해변 산책로와 어우러져 트레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리 위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를 조망할 수 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전체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방축도 출렁다리를 우선 개통하며 인도교 사업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구간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설사업은 유인섬(말도·명도·방축도)과 무인섬(보농도·광대도)을 포함한 5개 섬을 4개의 순서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사업으로서 ▲제1교 말도~보농도 308m /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 ▲제3교 명도~광대도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방축도 출렁다리를 오는 15일 정식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477m / ▲제4교 광대도~방축도 83m / 전체 총길이 1278m의 인도교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1월 착공한 이 사업은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 제1교와 제2교를 동시에 개통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6월에는 전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시는 관광객이 방축도를 더욱 쉽게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장자도~방축도간 단일 여객항로를 추가 개설(주말 2회)하고,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여객선을 운항할 방침이다.

현재 방축도행 여객선은 하루에 2회

(11:00, 14:00) 장자도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평일에는 기존과 같고 주말에는 군산항(군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08:20, 장자도에서 10:25, 11:20, 13:30, 14:20에 출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방축도 출렁다리 방문이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고군산군도를 여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배려 있는 여행이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제조업 일자리 매칭워크' 개최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성일하이텍 등 10개사 총 85명 채용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에 이본컨벤션센터 등에서 '제조업 일자리 매칭워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조업 일자리 매칭워크'는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홍보와 구직자발굴,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총 3개의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12일에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주제로 (주)코츠, (주)우일오토텍, 수연전장이 참여해 생산/품질관리직과 생산직 등을 포함, 1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주)엔씨유디스, 한산케미칼(주), 채용 등 6개사가 중장년 우대채용으로 50여명의 생산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으로 주목받고있는 성일하이텍(주)는 지난 9월 30일 서류접수를 마감

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칭워크 기간 내에 기업탐방 및 채용면접을 진행해 총 27명의 관리직을 채용할 예정이다.

에이본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매칭워크 현장면접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를 위한 가림막 설치, 대기좌석 및 시간지정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면접부스 뿐만 아니라 취업컨설팅, 심리상담, 노무상담 부대부스를 동시 운영해 행사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사지원서류 사전접수기간은 오는 7일까지며,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0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 시민의 날 개최 시민의 장·모범시민 등 시상

올해로 59회를 맞이하는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식전·후 행사를 생략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단체장들의 축하 영상을 상영하는 등 참석 인원을 49명 이내로 최소화해 실시됐다.

기념식에는 지난 9월 2일 선정된 군산시민의 장(문화예술체육장 이재완, 애항봉시장 박금옥, 산업장 조희민, 노동장 김시봉, 농림수산장 민윤기)과 시민화합과 시장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시민을 읍면동별 1명씩 27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대미문의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나, 너, 우리가 협력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지만 제59회 군산시민의 날을 계기로 우리시민들이 더욱 땀땀 뭉쳐 군산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원광대 김지환·배성호 철강슬래그 연구, '주목'

원광대학교는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지환·배성호씨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다.

4일 대학에 따르면, 최세진 교수의 지도로 '철강슬래그 골재와 비정질 금속섬유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공학적 특성'을 연구했다.

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철강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휨 강도와 인장 강도 등 역학적 성능과 건조수축 특성을 박막형

보강 섬유인 비정질 금속섬유를 이용해 개선시킨 결과물에 관한 논문이다.

건설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융복합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세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 연구책임자로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상, 건설순환자원인재 지도자상, 국제첨단소재협회(IAAM) 과학자 메달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익산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금마면 선정

익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금마고도지역이 선정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등 133억원을 투입,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마면 동고도리를 대상으로 뉴딜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 쉬는 금마를 주제로 펼쳐진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SOC 시설 확충, 공동체 기반조성,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벌인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4대 고도(古都)의 명성에 걸맞은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백제역사지구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총력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사업소는 최근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로는 브레이크등, 번호판을 포함한 등화장치 고장 번호판 가림, 미승인 등화장치 설치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홍보물 배부 등으로 시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게 노력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